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22)

1.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보도¹⁾
-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데 그쳐 갈등 완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함.
- 일각에서는 한·미·일 정보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망
- * 22일 한국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밝힐 계획임.
-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협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끝까지 균형 있게 대응할 것으로 보임.
- 한편, 한일이 외교 갈등은 식품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음.
- * 2020년 동경올림픽 대표단 단장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올림픽에 사용되는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
- * 21일 한국의 식약처는 23일부터 17개 품목의 일본 가공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 횟수를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

2. 기타

□ [업계 및 전문가 의견]

1) 「日韩愿为化解矛盾保持对话 军事协定能否延期成焦点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8. 22)

- LEDP(聰慧LED屏网)는 對韓 수출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이 단기 내에 일본의 의존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²⁾
- o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은 한국 반도체기업들은 반도체 소재 조달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음.
 - * 삼성전자는 벨기에로부터 일부 핵심 소재를 구입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할 계획
 - * 한국 정부도 R&D 지출을 확대하여 핵심소재 및 설비를 육성하고, 주요 핵심소재에 대한 국내 생산 확대를 주력할 계획임.
- o 특히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산 불화수소보다 일본산의 품질이 우수하고, 장기적으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수출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.
- o 일부 한국 기업은 일본을 대체하여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, 향후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생산을 확대해야 함.
- o 일본이 불화수소 산업 체인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규제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.
 - * 한국의 국내 생산규모는 9만 톤 정도이며 그중 반도체에 사용가능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
 - * 한국기업은 고순도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.
- 종남국제(縱覽国际)는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외부에서는 중국이 한일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, 중국이 중재자가 역할을 하는 데에는 3가지 장애물이 있음을 보도³⁾

2) 「引发日韩半导体之争的氟化氢的到底有多重要?」, 『慧聰LED屏网』(2019. 8. 22)

3) 「三国外长会“破冰”后 中国调停日韩矛盾的三大障碍」, 『縱覽国际』(2019. 8. 22)

- 예상되는 장애물 중 첫 번째는 한일 분쟁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태도 뒤에 반도체분야에서의 야심이 있다고 판단
- 두 번째는 한일 양국 국민의 태도가 정부보다 강경하여 중재가 어려우며, 세 번째는 미국발 무역분쟁 사례가 일본에게 영향을 주어 일본은 일방적인 제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
- * 특히 세 번째의 경우, 일본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대한국 수출규제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기업 규제와 같은 일방적인 제재이므로 분쟁을 해소하는데 어려움.